

‘수소항만-전기버스’로 친환경 속도 현대차그룹, 탄소중립 생태계 박차

평택항서 수소항만 MOU 체결
생산·충전망 등 인프라 구축
발리 전기버스 공급 첫 수주
글로벌 녹색 모빌리티 확장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 생태계 구축이 속도를 높인다.

국내에서는 평택시 등과 손잡고 탄소 중립형 수소항만 조성에 나서는 한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전기차 시스템 시범 운영과 친환경 교통로드맵을 수립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우선 현대차그룹은 11일 평택시청에서 평택시,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탄소중립 수소항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과 평택시 등은 평택항 기아·현대글로벌비스 사업장 내 수소 연료 전지(FC) 발전기 도입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사업을 진행한다. 또 평택항 일대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 항만장비 및 트럭, 수소 충전소, 수소·암모니아 벙커링 등 친환경 항만 전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평택항 인근의 수소 생산 단지를 활용해 안정적인 친환경 전력 공급 구조를 구축한다. 아울러 그린 암모니아 수입을 통한 친환경 그린수소 공급망 확장 및 육상전력장치(AMP) 등 수소 활용 어플리케이션 확대 도입을 추진해 수소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한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력에서 수소 사업을 총괄하며, 기아와 현대글로벌비스가

수소 어플리케이션 도입과 운영을 담당한다. 평택시는 수소 생산 및 배관 등 수소 도시 기반 인프라 구축을 맡는다. 이를 통해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녹색 해운항로’ 구축의 기반을 다진다는 목표다.

또 현대차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진행한 인도네시아 발리 내 전기버스 공급 관련 공개 입찰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발리에서 전기차 시스템 시범 운영과 친환경 교통 로드맵을 수립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인 수라바야에 전기버스 ‘카운티 일렉트릭’을 대중교통용으로 공급한 바 있으며 이번 입찰을 통해 발리에 카운티 일렉트릭 10대를 공급해 발리에서 최초로 전기버스가 대중교통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대차는 친환경 관광 정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발리의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향후 전기버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글로벌 TV패널가 11월 하락 전환

수요 둔화·재고 부담 누적

11월 들어 텔레비전(TV)용 글로벌 LCD패널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상반기 상승 흐름이 가을 들어 둔화한 데 이어, 11월 들어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2025년 11월 32·43인치 LCD TV 패널 가격은 각각 1달러, 50·55인치는 2달러, 65·75인치는 3달러 가량 하락했다. 단기간 지속되던 상승세가 보합세를 거쳐 꺾인 것이다. 글로벌 주요 패널업체의 평균 가동률은 약 80% 안팎으로, 4분기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거론된다.

패널가 하락 배경으로는 연말 프로모션 재고 소진과 글로벌 수요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미·유럽 지역의 교체 주기 장기화와 중국의 교체 촉진 정책 효과 둔화도 영향을 미쳤다.

TV 제조사의 신규 주문이 줄자 패널업체들이 생산량을 조정하며 단가 인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12월에는 65인치 이상 대형 위주로

하방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번 패널가 인하는 단순한 원가 절감 요인이라기보다 수요 위축이 전방(세트)과 후방(패널) 모두에 파급된 ‘동반 조정 신호’로 해석된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중국 TV 제조사의 공격적 물량 확보가 단가 상승을 이끌었지만, 최근에는 판매 부진과 재고 부담이 겹치며 생산 계획이 축소됐다. 이에 따라 패널업체들이 납품 단가를 낮추더라도 가동률과 출하를 유지하려는 방어적 조정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수요 둔화가 선행되고 단가 인하가 뒤따르는 전형적인 조정 사이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국내 기업들도 대응에 나서는 중이다. LG전자는 OLED 중심의 프리미엄 제품군과 자체 플랫폼(webOS)을 앞세워 수익성 중심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초대형 TV와 AI 업스케일링 기능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라인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정희준 기자 nauta@

HD현대, 인도 합정시장 교두보 확보

코친조선소와 LPD 협력 체결

HD현대가 인도 코친조선소와 협력 범위를 확대하며 인도 합정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인도 최대 국영 조선소인 코친조선소와 ‘인도 해군 LPD(상륙함)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코친조선소는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 위치한 대형 조선소로, 상선부터 항공 모함까지 설계·건조·수리 역량을 갖춘 곳이다. 앞서 지난 7월 HD현대의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은 코친조선소와 MOU를 맺고 ▲설계·구매 지원 ▲생산성 향상 ▲인력 역량 강화 등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MOU는 인도 해군이 추진 중인

상륙함 사업을 공동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으로, HD현대중공업은 이를 통해 인도 특수선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상륙함 설계·기술 지원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인도 정부는 대규모 군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15년간의 군 전력 발전 방향을 제시한 ‘TPCR 2025’를 공개하고, 해군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구축함·상륙함 및 핵추진체계 등 주요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오는 12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이 마무리되면 이번 협력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HD현대중공업의 합정 건조 역량과 HD현대미포의 해외 조선소 운영 경험이 결합돼 기술 경쟁력과 사업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대한항공

화물 시스템 API 연동

실시간 데이터 교환 강화

대한항공은 항공 화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사 시스템에 고객사들의 시스템을 연동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해 운영한다.

전자 상거래 시장의 빠른 성장에 맞춰 물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변화의 일환이다.

대한항공이 새롭게 선보이는 솔루션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반의 화물 시스템 연계 솔루션으로, 대한항공 화물시스템과 고객사 시스템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항공사와 연계된 자체 시스템을 통해 스케줄 조회, 운임 확인, 화물 예약, 운송장 전송 등 제반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솔루션 도입은 항공화물 산업의 디지털 전환의 일환”이라며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해 항공화물 업계에 혁신을 더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대한항공 B747-8F 항공기.



갤럭시 Z·폴드7을 구경하고 있는 방문객들 모습.

/삼성전자

삼성, 플래그십 전 라인업 ‘흥행’

S25 인기 이어 폴더블도 판매 호조
AI·디자인 혁신에 실적 상승세 지속

삼성전자가 올해 선보인 갤럭시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하반기에도 연속 흥행을 이어가며 연중 내내 실적 호조세를 기록하고 있다.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시한 ‘갤럭시 Z 폴드7·Z 플립7’이 역대 폴더블폰 최다 사전 판매량인 104만대를 기록한데 이어 4분기까지도 꾸준한 판매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갤럭시 Z 폴드7’은 역대 갤럭시 Z 폴드 시리즈 중 가장 얇고 가벼운 디자인을 구현했다. 아울러 2억 화소 카메라, 원 UI8 기반의 한단계 더 진화한 인공지능(AI) 기능까지 갖춘 완성형 폴드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전작을 훨씬 웃도는 판매 실적으로 하반기 플래그십 흥행을 견인 중이다.

‘갤럭시 Z 폴드7’은 접었을 때 8.9mm의 두께와 215g의 무게로 역대 갤럭시 Z 폴드 시리즈 중 가장 얇고 가벼운 폼팩터를 구현했다. 또 펼치면 보이는 8.0형 메인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스마트폰 중 가장 넓은 화면으로 더욱 편안한 멀티태스킹과 높은 몰입감을 제공한다. 여기에 2억 화소 광각 카메라와 AI 기반

프로비주얼 엔진을 장착해 전문가급 카메라 경험을 제공하며 갤럭시 AI를 통한 ‘생성형 편집’ 기능으로 사진 속 원치 않는 대상을 편하게 지우고 자연스럽게 채워준다.

‘갤럭시 Z 플립7’도 콤팩트한 디자인에 확장된 커버 디스플레이로 인기를 끌며 출시 후 현재까지 전작 대비 동등 수준의 판매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월 출시해 새로운 초슬림폰 시장을 연 ‘갤럭시 S25 엣지’ 역시 하드웨어 혁신과 강력한 성능, 내구성까지 갖춘 정교한 설계로 고객 수요를 공략하며 상·하반기 S25 시리즈 흥행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갤럭시 S25 엣지’는 하반기 타사 신제품 출시 후 초슬림폰 시장이 확대된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을 리딩하는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오히려 판매가 늘어나는 등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사전 판매에서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가장 많은 130만대를 기록한 데 이어 누적 판매량에서도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 최단 기간 100만대를 돌파하는 등 연이어 흥행 신기록을 달성해 화제를 모았다.

/차현정 기자 hyeon@